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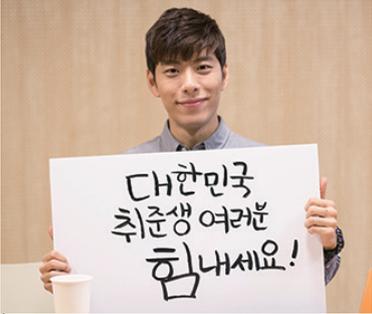
일상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산시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서로의 배려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안산톡톡은 사랑을 싣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자리부터 취미생활, 힐링까지 보장하는 오감만족 안산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며 누리는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채용 박람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주목해보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지원·면접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채용사이트(www.work.go.kr)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유선 및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접수 : 10월 8일(목) /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882, 2277)

마음건강 로켓처방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고립감, 소외감과 더불어 우울감, 무기력감을 경험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또한 정신 건강 상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심리적 거부감으로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준비했다.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마음건강문제와 고민을 접수하면 24시간 이내 정신건강전문가의 맞춤형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마음건강 로켓처방!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처방을 받은 후 실천 후기를 남기면 *오감키트(체험키트)가 집 앞으로 배송된다.



오감키트(체험키트) 구성품

시각 액자, 연필	청각 목공 스피커	후각 족욕제	미각 비타민	스트레스 볼 촉각

참여 : <http://rocket.bnicompany.com>
문의 :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411-7573~4)

살구엽서 보내기



‘살리고 구하는 안부엽서’라는 뜻을 가진 살구엽서. 2019년부터 관내 서점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손글씨 안부전달 캠페인이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엽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매달 추첨을 통해 참여자에게 경품도 지급한다.

문의 : 안산시 자살예방센터(031-418-0123)



청년 물품대여 서비스



만 15~39세 안산 청년 모두를 위한 공유물품! 상상대로 멤버십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 최대 7일까지 대여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대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방구석키트 : 빔프로젝터&스크린, 공구세트, 사다리 등
- 캠핑키트 : 캠핑용품(테이블, 체어, 차량타프, 캠핑카트, 아이스박스, 파라솔, 랜턴 등)
- 촬영키트 : 촬영용품(플라로이드 카메라, 스마트폰 짐벌, 링조명 삼각대 등)
- 도서키트 : 각종 도서 대여

주소 :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12(와동)
문의 :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031-492-2031)

비대면 가족프로그램

어린이집 휴원과 등교 제한으로 지쳐가는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체험활동. 요리, 퍼즐, 만들기 놀이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미션을 매달 풀어보자!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션 확인 후 가족 활동을 인증하면 체험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참여 : <http://ansan.familynet.or.kr>
문의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기 힘든 요즘. 무려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안산시가 준비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콕'하는 방법!**



원곡동 클라쓰

① 세계 문화 클라쓰

오는 10월 26일! 세계 공예 체험, 놀이 체험, 의상 체험을 안내하는 동영상 통해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각 30가정을 선정해 문화체험 키트를 발송하면 체험 후 사진으로 피드백 하면 된다. 10월 첫째 주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컬처75 페이스북(컬처75로 검색)을 통해 체험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세계 공연 클라쓰

1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 공연, 코트디부아르·가나 등 아프리카 전통 타악연주 공연, 필리핀 여성들이 출연하는 필리핀 전통 민속 춤 공연 등 영상콘텐츠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유튜브를 통해 11월 28일부터 감상할 수 있다.

문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과(031-481-3309)



영상으로 즐기는 세계문화

상호문화도시 안산!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주한 외국인 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세계문화체험관과 외국인 강사의 합작 영상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와 특이한 악기, 소품, 놀이, 음식 등을 소개한다.

문의 : 안산시 세계문화체험관(031-481-3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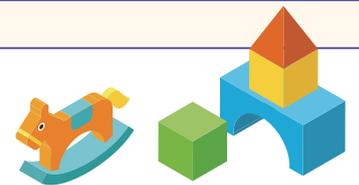
도서관 안심예약대출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은 도서 안심예약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수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안심예약 5권, 상호대차 3권으로 14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필요시 7일 연장해 대출할 수 있다.

문의 : 중앙도서관(031-481-3868)



비대면 장난감 픽업 서비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러브맘카페는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장난감 픽업(pick up)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난감 3종을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후 화요일부터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대여 장소(단원구 광덕2로 249)에서 인수하면 된다.

예약 : <http://ilovemom.ansanbo6.or.kr>

문의 : 아이러브맘카페(031-481-8683)



안산그리너스FC 경기, 온라인으로 관람하자!

중계채널 NAVER TV afreecaTV

9/27(일) 안산 vs 대전

10/3(토) 안산 vs 수원FC

10/11(일) 제주 vs 안산

10/18(일) 충남아산 vs 안산

10/25(일) 안산 vs 서울E



재범, 반드시 막는다!



안산시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CCTV영상을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범죄예방CCTV 3천622대를 시 구석구석에서 가동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등 밝기 개선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친화도시 인증 절차도 추진한다. 한 층 더 안전해질 도시 환경을 기대하며 안산시가 마련한 각종 대책들을 살펴보자.



365일 24시간 이뤄지는 범죄 예방 모니터링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시에 따르면 관내 방범용CCTV는 총 3천622대다. 올해 연말까지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개소에 211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된 CCTV는 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범죄 예방에 활용한다. 지난 7월부터는 경찰, 소방 등과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10월부터 고위험군 성범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방범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더 철저하게! 방범CCTV 3천795대 설치와 노후 방범CCTV 3천523대 신형 교체



시는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방범CCTV 3천795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방범CCTV 3천523대를 신형으로 교체한다. 과거 흉악한 성범죄가 발생했던 장소 일대에는 내년 초까지 CCTV 15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단원구 선부동과 상록구 부곡동, 상록구 월피동 등 3곳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안심 길 조성사업을 벌였다. 이곳에는 비상벨

기능이 있는 방범CCTV와 방범용LED 안내표시판, 바닥이나 벽면에 비추는 안전 로고젝터 등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들이 설치됐다. 또 골목길 등 어두운 밤거리를 중심으로 이미 설치돼 있는 보안등을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친화도시' 인증 절차 추진

시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양한 친화도시 인증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로부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시는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추진하며 재지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성범죄자 재범 가능성을 막고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에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한 내용은 실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성범죄자 알림e'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자발찌 추적기능과 GPS를 연계한 위치파악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 건의도 한 상태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위해 성범죄 예방에 총력

시는 지난 9월18일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보호수용제도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운영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정부지정 등을 요청했다.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실효적·종합적 대책 수립 및 운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행정·입법·사법·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는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 지속 점검 코로나19 예방수칙, 꼭 지켜주세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및 2주 연장으로 일부 업종에 내려진 집합금지조치가 9월27일 자정까지 집합제한으로 완화됐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1~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포장·배달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제과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은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하나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이행해야 하는 등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이 제한된 모든 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



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되며 그 외 기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유지된다.

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 완화 및 연장발표에 따라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및 의무화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생활방역단을 통한 분야별 시설물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깜깜이 환자 비율이 20%가 넘는 등 대규모 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민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개인적인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고 가급적 안전한 집에 머무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2726)

소식通 NEWS

안산화폐 다운카드 20만원 쓰면 '5만원 혜택'

안산화폐 다운카드를 20만원 이상 쓰면 기존에 주던 10% 인센티브(2만원)에 추가로 3만 원을 지급한다. 소비지원금 지원은 지역화폐 소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예산 1천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만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충전과는 별개로 9월18일부터 11월17일까지 20만 원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비지원금 3만 원은 즉시 지급이 아닌 10월26일과 11월26일에 각각 지급된다. 또한 1개의 카드로 20만 원을 써야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카드 2개 이상을 각각 20만원씩 사용해도 단 한 번만 지급받는다.

또한 기존에 충전된 다운카드 잔액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청소년 교통비 환급금 등 지급형 화폐는 결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타 시군 지역화폐 결제액과는 합산되지 않는다. 지급 받은 3만원은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로 사용해야하며 미 사용시 회수된다.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921)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안산시가 지원합니다 약물 복용 상담부터 생활·건강 계획 수립까지!

어르신들의 올바른 약물 복용을 돕기 위해 약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편안하게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지난 7월부터 안산시 약사회와 함께 노년 분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안산형 가정방문 약사 복약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안산시 약사회 소속 22개소 약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사가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섭취하는 어르신 가정으로 찾아가 약 정리, 약 부작용, 약의 중독 섭취 방지 등 올바른 ▲복약 지도 ▲식생활 상담 ▲생활관리 ▲건강계획 수립 ▲말벗 서비스 등 맞춤형 통합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안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

데 요양병원 장기입원 퇴원 노인, 단기입원 지역복귀 노인, 만 75세 도래 고위험군, 다제약제 처방 복합 만성질환 노인 등 통합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안내 창구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약사 복약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두통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먹는 약만 수십 가지가 됐고, 최근 설사가 잦았는데 원인이 약의 중독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며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도 오고 잠도 잘 못 잤는데, 약사님이 직접 건강상담도 해주고 올바른 약 복용방법도 설명해 주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3418)

안산시청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창구 개설

안산시는 시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요청제를 제도화하고, 신고 창구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규제입증요청제는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및 제도규제에 대해 시민·기업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규제입증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규정의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 후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건의방법은 시 홈페이지(민원안내→신고센터→규제신고→규제입증요청)에 첨부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본인확인 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요청된 안건은 규제개혁 부서가 관련 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결과를 6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된다.

문의 : 안산시 혁신법무과(031-481-2059)



복약 지도



식생활 상담



말벗 서비스



역학조사관이 궁금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 동선 등을 파악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역학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안산시는 2020년 8월, 시 소속 공중보건조사 3명을 연말까지 한시적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역학조사관으로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심층역학조사 등에 나서고 있는 김기량(30) 역학조사관을 만났다.



김기량 역학조사관

Q. 역학조사관이란 무엇인가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원인과 특성을 밝히는 과정을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류하고 격리(자가)시키는 일을 합니다. 확진자 동선 분석과 CCTV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그에 맞는 방역 대책을 세워 감염 확산을 막는 전문가를 역학조사관이라고 합니다.

Q.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선 공개는 확진자 동선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지역사회에 감염 우려가 발생할 경우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대중에게 방문 장소 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접촉자 분류 및 격리, 방역 조치 등이 완료돼 추가 감염 우려가 없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Q. 안산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업무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먼저 보건소에서 1차 기본 조사를 합니다. 이때 확진자가 병원이나 학교 등을 방문해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신속하게 판단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역학조사관이 한 번 더 인터뷰하며 1차 심층역학조사를 벌이고 2차 현장조사를 합니다.

24시간 내에 확진자 동선을 분석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방역 조치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조사의 신속성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동선을 알려 시간을 지체하게 될 경우 방역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선 분석이 완료되면 현장 방역 등 세부 계획을 세워 보건소에 전달하고, 현장에서 CCTV를 분석하는 등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CCTV가 없는 경우 자가 격리를 통보를 할 수밖에 없으며,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방문한 접촉자를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선 공개는 확진자 본인과 지역사회에 모두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선과 관련 거짓 진술, 사실 누락, 은폐 등으로 시간을 지체할 경우 처벌은 물론 지역사회에 감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 조사의 신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진자는 자신의 동선을 명확하게 공개해 지역사회에 감염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확진자 개인 정보나 방문 장소의 상호명 등 구체적인 동선을 알려달라는 과도한 민원으로 보건소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곧 현장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 행정력의 과부하를 발생시키며 방역을 위한 현장 출동과 격리 조치 등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음 편히 들르는 우리 동네 안심식당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익숙했던 생활과 멀어지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새로운 일상이 돼버렸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강화할수록 모두가 조심 또 조심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속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며,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을 소개한다.

안산시는 올해 7월 관내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36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안심식당이 되려면 5대 실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필수 요건인 ▲떨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배부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충

족하고, 안산시 자체 기준인 ▲손소독제 상시 비치 ▲업소 내 소독·생활방역일지 작성 등을 통과해야 한다.

필수 요건 중 떨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 제공할 때는 혼자 방문해도 이용할 수 있는 접시와 집게, 국자 등을 제공해야 하며, 개별 포장된 수저를 이용해 수저 위생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또 식당 종사자는 마스크(위생, 보건, 투명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식당(일반음식점)은 필수 요건을 갖춘 후 적합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지정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시로부터 손소독제 등 10~15만원 상당의 가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유지를 위해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분기별로 실천 과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 지 점검을 받아야 하며, 5대 실천 과제 중 한 개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안심식당을 이용해보자.

문의 :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2233)

안산시 안심식당 현황 (9월 11일 기준, 지정일 순 정렬)

사업장명	주소
천하일미	단원구 광덕대로 251, 2층 (고잔동)
아리원중화요리	단원구 광덕대로 251, 3층 (고잔동)
윤숙이네갈국수	단원구 대부황금로 1425, 1층 (대부북동)
무교낙지	상록구 땀이길 6, 1층 (사동)
행복, 짬뽕	상록구 본이로 62, 1층 (본오동)
대호식당	상록구 샘골로 123, 1층 (본오동)
이천영양돌솥밥	상록구 향가울로 7, 1~2층 (사동)
상록한정식	상록구 해안로 705, 지하1층 (사동)
지중해참치	단원구 고잔1길 66, 1층 (고잔동)
본가해미침	단원구 선부광장로 67, 2층 (선부동)
노르딕언어	단원구 중앙대로 873, 롯데백화점 지하1층
도제	단원구 중앙대로 873, 롯데백화점 지하1층
동동국수집	단원구 중앙대로 873, 롯데백화점 지하1층
부영이돈가스	단원구 중앙대로 873, 롯데백화점 지하1층
코바코	단원구 초지로 90, 1층 (초지동)
동천계장	단원구 광덕3로 167-16, 1층 (고잔동)
줄구면도속음식	단원구 광덕4로 234, 2층 (고잔동)
몽차우	단원구 광덕대로 141, 2층 (고잔동)
마루숯뚜껑와인삼겉살	단원구 광덕대로 145, 2층 (고잔동)
한촌설령탕안산고잔	단원구 광덕대로 161, 1층 (고잔동)
와참치	단원구 광덕대로 168, 1층 (고잔동)
광양참숯불구이	단원구 광덕동로 101, 2층 (고잔동)
웅가네추어탕	단원구 아삭2길 59, 1층 (고잔동)
한양복국시	상록구 송호1길 93, 1층 (이동)
사조화참치	단원구 광덕2로 193-19, 1층 (고잔동)
양푼이김치찌개	단원구 이삭2길 27, 1층 (고잔동)
니뽕내뽕	단원구 고잔로 102, 2층 (고잔동)
명륜진사갈비선부점	단원구 선부로 187, 2층 (선부동)
쉐프스라온지	단원구 광덕2로 156-11, 1층 (고잔동)
홍봉선간장계장	단원구 광덕동로 61, 2층 (고잔동)
손큰원조할매순대국	단원구 광덕동로 61, 1층 (고잔동)
홍여한상	단원구 광덕2로 193-15, 1층 (고잔동)
핏제리아디오븐	단원구 광덕대로 168, 2층 (고잔동)
은진추어탕	상록구 서암로4길 24, 1층 (사동)
토종한우곰탕	상록구 송호3길 4, 1층 (이동)
사또주물럭	단원구 광덕동로 75, 1층 (고잔동)



2020년도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2021년도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앞서 보다 알차고 유익한 시정소식을 전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 결과의 안산시 시정소식지 향후 개선 방향의 기초자료로써 시민만족도 및 문제점 파악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50분을 추첨해 기프티콘(1만원 상당)을 발송해 드립니다.**

설문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이는 안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기간 2020. 9. 23. ~ 10. 27.(35일간)

참여방법 ① 우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우15335)) 해당 페이지를 오려서 10월27일까지 후납우편으로 보내주세요.
② 하단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설문조사 참여

조사기관 안산시청 공보관(홍보기획팀) 문의 031-481-2042

안산톡톡 EVENT

시정소식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조사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이 팡팡!



아래 질문에 귀하의 의견을 표기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 지역은? ① 상록구 ② 단원구 ③ 기타지역
4. 가장 효과적인 시정홍보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정소식지 및 시정소식 e안산톡톡(인터넷포털)
② 안산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③ 시정방송 '안산드림TV' 및 유튜브
④ 안산시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⑤ 현수막·전광판 ⑥ 간행물 ⑦ 게시판 ⑧ 기타()
5. 귀하는 현재 '안산톡톡'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② 아니다 선택 시 16번 문항으로 이동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6. 귀하가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을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관공서(행정복지센터 등) ② 시 홈페이지 ③ 지정비치함(신문게시대)
④ 주위 사람 권유 ⑤ 기타()

7. '안산톡톡' 구독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개별우편 ② 시 홈페이지 ③ 직접수령(관공서, 다중집합장소)

설문7-1. 직접 수령할 때 원하는 장소가 있으시면 기재해 주세요.

설문7-2. 일반주택단지 중 지정비치함이 설치되면 좋을 장소를 기재해주세요.
(예. 00할인마트, 00경로당, 00 민간단체, 00커피숍 등)

8. 평소 안산시의 정책 등 시정소식을 주로 무엇을 통해 접하십니까?
① 시정소식지 및 시정소식 e안산톡톡(인터넷포털)
② 안산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③ 시정방송 '안산드림TV' 및 유튜브
④ 안산시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⑤ TV방송매체 및 신문 ⑥ 현수막·전광판 ⑦ 간행물 ⑧ 게시판 ⑨ 기타()

9. 시정소식을 접하는 매체로서 소식지가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10. 소식지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뤄주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주요시책 ② 경제·일자리 ③ 안전 ④ 교육 ⑤ 건강·복지
⑥ 문화·예술 ⑦ 축제·행사 ⑧ 동네소식 ⑧ 기타()

11. 시정소식지에 대한 내용 만족도를 체크해주세요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설문11-1. 시정소식지에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현재 시정소식지 디자인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설문12-1. 디자인 불만족 시 소식지의 디자인 방향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13.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의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발행주기 ② 발송방법 ③ 편집과 구성내용 ④ 홍보 ⑤ 크기 및 형태
⑥ 기타()

14. 시정소식지 정기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홍보방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15. 2021년도 안산톡톡 제작시 희망하는 콘텐츠 또는 개선사항을 기재해주세요.

※ 5번 항목에서 (②아니다)를 선택하신 분께서는 아래 16번 문항부터 응답해주세요.

16. 평소 안산시의 정책 등 시정소식을 주로 무엇을 통해 접하십니까?
① 시정소식지 및 시정소식 e안산톡톡(인터넷포털)
② 안산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③ 시정방송 '안산드림TV' 및 유튜브
④ 안산시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⑤ 현수막·전광판 ⑥ 간행물 ⑦ 게시판 ⑧ 기타()

17. 귀하께서는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어떤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홍보 ② 지역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홍보
③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활용한 홍보 ④ 기타(지역 통장을 활용한 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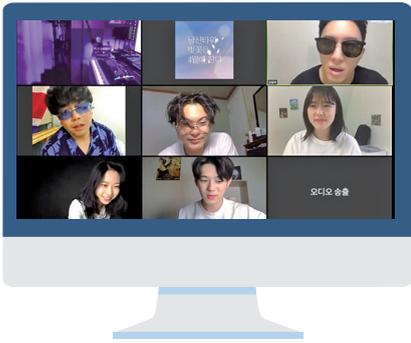
18.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의 정기구독 신청을 원하실 경우 성함과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월 1회 무료 발송)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품 발송을 위해 응답자 성명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응답자 설명 / 연락처(휴대폰번호)

코로나19에도 계속되는 청년 예술인들의 특별한 도전!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연극, ‘남산타워 벚꽃은 4월에 진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다. 특히 ‘비대면’을 강조하게 되면서 일상생활 전체가 위축됐다. 문화·예술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는 ‘관객의 존재’라는 직접 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예술에서의 창작, 제작, 유통, 소비, 향유 등 문화·예술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

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 지침 등은 문화시설 휴관, 공연·전시·축제 취소 등으로 이어졌다. 문화·예술 활동 중단과 위축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산 청년 예술인들이 모인 청년예술가집단, ‘프로덕션 연작’이 특별한 도전을 시도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과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지난 9월11일 관객과 만난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연극 ‘남산타워 벚꽃은 4월에 진다’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20대 청년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실제로 배우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하며 연기를 하고, 그 화면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형식의 새로운 시도였다.

실제 공연 팀은 ‘가상 공간’을 통한 관객과의 만남을 추진하면서 3주 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 연습하는 등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을 맡은 김승운 연출가는 “새로운 시도였던 이번 공연은 코로나19가 가져온 현실에서 나온 선택이었을 뿐”이라며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공연예술 형태는 이미 선배 예술가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해왔던 작업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술은 역사의 흐름, 과학·기술 발전 등과 함께 늘 변해왔기 때문에 기존 공연예술 방식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한 뒤에도 이런 형태의 공연을 지속할 수 있다”면서 “관객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프로덕션 연작(010-4159-5857)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정문규미술관의 Human Art Festival 2020 10월25일까지 열리는 ‘인간展’ 2부, ‘인간탐구 - 존재(내적 갈등)’

인간을 주제로 74인의 작가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획초대전 ‘인간展’ 2부가 정문규미술관에서 오는 10월25일까지 열린다.

이번 기획초대전 ‘인간展’은 1982년 ‘인간11人展’을 시작으로 1987년까지 6회에 걸쳐 열린 전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꾸준히 작업해온 74명의 작가들을 초청해 6개월에 걸쳐 1~3부로 나눠 전시한다.

지난 8월부터 열린 2부 전시에서는 1980년대 ‘인간展’에 참여했던 작가 강희덕, 권순철, 김영원, 노원희, 박정애, 안창홍, 오원배, 윤석남, 이용덕, 정복수, 홍순모, 황용엽 등 12명과 새롭게 선정된 작가 강형구, 김병철, 김승영, 김일용, 김재홍, 남궁원, 박상희, 이연정, 이재삼 등 총 21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초 초대된 작가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현대의 삶을 자각하는 그들의 정신과 그 속에서의 갈등, 압박 그리고 상처받은 인간의 치유를 목적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인간展’에서 획일적이거나 지배적인 표현 유형이 아닌 현대의 삶을 자각하는 인간정신과 제한된 공간에서의 갈등, 압박을 직설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 형식을 과감히 동원한 모습을 작품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

정문규 관장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여름을 보내고, 선선한 가을에 바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정문규미술관에서 작가들이 각각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의식과 현대인의 삶 속에서의 ‘인간 존재 의미’ 내지는 관객이나 자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 시 마스크 미착용자와 37.5°C 이상 발열 등 증상 보유자는 입장이 금지된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뒤 손소독과 체온측정,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입장할 수 있다. 안내에 따라 관람객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관람 동선을 지키며 관람해야 한다.



정문규미술관 전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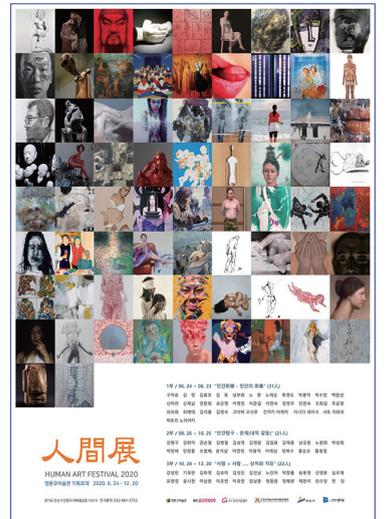
전 시 명
‘인간展’ 2부 ‘인간탐구 - 존재(내적 갈등)’

관람시간
오전 11시 ~ 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무)

관람료 성인 5천원, 학생 3천원

장 소
단원구 대부항금로 153-9,
정문규미술관 1·2 전시실

문 의 정문규미술관(032-881-2753)



안산혁신교육지구 시즌3 건강한 지역교육공동체를 꿈꾸다! 교사, 활동가, 연구원 등 각계각층에서 말하는 안산 지역교육공동체 이야기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daum.net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교육에 있어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구성원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다.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는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을 가진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든다.

2016년 안산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진행한 안산시는 내년 시즌3 운영을 앞두고 있다. 지역 사회 교육인프라 발굴에 주력했던 시즌2와 달리 마을 교육으로 한 층 더 확장된 교육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산혁신교육지구에 참여 중인 각계각층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필요한 과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김민경 안산혁신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혁신교육지구는 지역교육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



안산혁신교육지구에서는 기존 국가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서로 수업을 받았던 것과 달리 내가 사는 지역 역사와 도시 문화, 생태 등을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 배운다. 아이들은 내가 살고 있는 안산의 장점과 이야기를 알아가며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주의식을 가진다. 프로그램도 지역 단체와 학교 교사들이 협력해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부터 시작할 안산혁신교육지구 시즌3는 기존 교육과정 범위를 학교 중심에서 마을 지역 공동체로 확장했다. 운영주체도 시청, 교육청 등 기관 중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로 넓혀 더 많은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실제 생활 범위인 ‘마을’에 집중하면서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내가 사는 마을과 지역 전체에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역 교육력도 높일 방침이다.

안산은 농·어촌이 어우러지는 자연 환경과 다문화, 공단 등 도시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해 그 어떤 도시보다 훌륭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축된 안산시혁신교육협력센터는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역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센터 기능과 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주애 前 반월중학교 교사

학생 성장을 위한 배움의 공간 확장이 필요해



안산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콘텐츠 활용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그중 ‘안산품은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삶의 터전인 지역과 이웃을 이해하는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매우 유용했다.

교사들이 기대하는 학생들의 ‘성장’은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크는 것이다. 삶의 터전인 지역을 빼놓고 교과서 속이나 학교 안에서만 그런 역량이 키워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배움의 공간을 확장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식을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한다면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이다.

최근 대두된 교육 자치를 염두에 둘 때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단편적인 사업 진행과 운영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 교육정책을 통합해가는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교육공동체 주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면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강화할 때 건강한 지역교육생태계가 마련될 것이다.



백승희 문화세상고리 대표

다문화 도시로서 안산을 사랑할 수 있는 현장 체험 교육, 안산품은학교



학부모이자 활동가로 참여했던 프로그램 ‘안산 품은학교’는 안산에 살고 있는 청소년에게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乡심을 향상시키는 현장식 혁신교육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기업 ‘문화세상고리’가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서 안산품은학교 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다문화 도시로서 안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문화 강사들과 조별로 QR 코드화된 특구 정보와 지도를 보면서 이슬람사원, 세계문화체험관, 이국적인 식당거리 등을 둘러보고 활동한다.

안산품은학교로 원곡동을 방문한 학생들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4천여 명이 넘었고, 이중 90%는 이곳을 처음 방문했지만 ‘다시 오고 싶다’고 말한다. 참여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언어, 음식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안산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 동네와 다르지 않고 재미있는 동네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를 통해 원곡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견이 다문화강사들과 동네 곳곳을 거닐며 달려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안산품은학교가 진정으로 바라고 지향하는 ‘내 고장을 사랑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 활동가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움직이는 '온마을 자연학교' 시리즈 ③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춘 안산은 생태환경도시로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재단을 설립했다. 안산환경재단이 지원하는 안산형 시민환경교육 통합 브랜드 '온마을 자연학교'는 마을 주민이 환경교육 리더가 되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벌인다. 지역 자연생태환경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하고 환경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온마을 자연학교 동아리를 6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정원 가꾸기 동아리

자연과의 어울림

“심과 활력이 있는 정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 생태 환경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는 안산시민에게 사랑받는 자연 휴식 공간 중 하나다. 푸르른 나무와 사방이 뽕 뚫린 습지를 바라보며 걷다보면 가슴 속 답답했던 스트레스와 짜증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 안산갈대습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온마을 자연학교 동아리 '자연과의 어울림'은 자연생태계 식물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가드닝(gardening, 정원을 가꾸고 돌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다. 이들은 식물에게는 숨 쉬는 공간을, 사람에게서는 힐링과 정서적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정원을 가꾼다.

자연과의 어울림은 환경 강사, 시민정원사, 도시농업관리사 등 지역의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다. 현재 13명이 활동 중인 동아리는 환경 지식과 전문성을 살려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환경 교육은 물론,

갈대습지의 미관을 살리는 각종 활동을 벌인다. 이들의 손길을 거치면 장마철 갈대습지공원 내 무성하게 자라난 풀로 가득했던 숲은 식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고, 시민의 편안한 산책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들은 가지치기 등 조경을 통해 깔끔하게 정돈된다. 자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태 미관과 천연 향내음은 동아리 활동의 원동력이다.

자연과의 어울림은 지난해에만 총 99회에 걸쳐 식물 유지관리, 교육 멘토, 업사이클, 환경시설관리 등 활동을 펼쳤다. 자연 향 가득한 온실 정원을 만들어 식물 월동 준비를 돕고 폐방부목과 폐자재를 활용해



벤치와 허수아비를 제작했다. 또 하천 환경정화, 도로변 미화 관리, 배려 계층 어린이를 위한 텃밭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강한식 자연과의 어울림 대표는 “식물 관리 생활화 프로그램, ‘사각지대 정원화 활동’ 등을 통해 집에서 화단을 가꾸고 식물을 기르는 일부터 시작해 생태 환경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 변화를 꾀할 계획”이라며 “휴식과 활력이 있는 가드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식물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05~6)



자원이 순환하는 우리 동네

이동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센터 운영 개시



안산시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and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거점배출 시설인 자원순환센터를 상록구 이동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설치하고 관리 인력을 배치했다.

주민들은 9월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자원순환센터의 각 품목별 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종이, 빈 병, 플라스틱, 캔,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품만

배출 가능하다. 또한 자원순환 실천 장려를 목적으로 오전 9~11시 사이에 일정량 이상 배출할 경우 종량제봉투(10ℓ)를 하루에 1매씩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안산시는 2019년 9~12월 상록구와 단원구에 각각 1개소씩(본오1동행정복지센터, 와동 강서고등학교 뒤편) 시범 설치·운영했고, 수거한 재활용품 9.7톤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100여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 등에 썼다.

시 관계자는 “제대로 분리배출 되지 않은 재활용품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기물이 되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꼼꼼히 재활용한다면 환경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일반주택지역, 무단투기 취약지역 등에 9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8)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모든 종이 재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나은 정보
www.me.go.kr
Ministry of Environment

오염된 종이

음식물 등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

폐
휴지

영수증 전표

택배
전표

영수증

코팅지

금·은박지

비닐
코팅지

기타

벽지
(합성수지
소재)

세절지
(파쇄지)

부지포

자세한 내용은 분리배출법을 참고해주세요.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용품 무료대여 시행

안산시장애인체육회는 9월1일부터 코로나 19 사태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직원이 대여를 신청한 곳에 직접 방문해 소독을 마친 생활체육용품을 전달 및 반납까지 지원하고, 대여한 용품에 대한 사용법 전달과 비대면 시연을 통해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여용품은 컬링세트, 림보허들게임 등 50여종의 생활체육용품이며 유튜브(안산시 장애인체육회TV) 채널을 통해 대여한 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영상과 지도영상을 제작해 매주 업로드를 하고 있다.

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활동이 제한돼 지쳐있는 관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안산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assad.club)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안산시장애인체육회(070-7790-0550)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안내

대상

- 어린이 : 생후 6개월 ~ 만18세(2002.1.1. ~ 2020.8.31. 출생자)
- 어르신 : 만62세 이상(1958.12.31.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만50세 ~ 만61세 이하로 주소지가 안산시인 자
- 장애인 : 만19세 ~ 만61세 이하로 주소지가 안산시인 자
- 만성질환자 : 만19세 ~ 만61세 이하로 주소지가 안산시인 자

접종장소 지정 의료기관 239곳(상록구 106곳, 단원구 133곳)

대상자별 접종기간

구분	접종기간	대상	접종장소
어린이	2020.9.8.(화) ~ 2021.4.30.(금)	2회 접종 대상자	전국 위탁 의료기관
	2020.9.22.(화) ~ 2020.12.31.(목)	1회 접종 대상자	
임신부	2020.9.22.(화) ~ 2021.4.30.(금)	-	
어르신	2020.10.13.(화) ~ 2020.12.31.(목)	만75세 이상 (1945.12.31.이전 출생자)	
	2020.10.20.(화) ~ 2020.12.31.(목)	만70세 ~ 74세 미만 (1946.1.1. ~ 1950.12.31)	
	2020.10.27.(화) ~ 2020.12.31.(목)	만62세 ~ 69세 미만 (1951.1.1. ~ 1958.12.31)	
취약계층	2020.10.27.(화) ~ 2020.12.20.(일)	기초생활수급자 (만50세 ~ 만61세 이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만19세 ~ 만61세 이하)	안산시 위탁 의료기관
고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2020.10.27.(화) ~ 2020.12.31.(목)	만61세 이하 만성질환자 (당뇨, 호흡기, 심혈관 등)	보건소

※ 어르신 연령별 접종기간 상이 : 초기 접종인원 소림 현상 예방 및 안전 사고 방지 위함
 ※ 어린이 2회 접종대상자 : 생후 6개월 이상부터 만8세 이하 어린이 중 처음 접종하는 소아
 ※ 참여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

예약방법 온라인(http://nip.cdc.go.kr), 모바일앱(예방접종도우미)

문의 상록수보건소(481-5891~3), 단원보건소(481-6475~8)

건강지식 칼럼

당신의 혈관건강은 어떠신가요? 예방이 중요한 뇌졸중

무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이 다가오고 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 체온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 체온이 떨어지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혈압이 높아지고 동맥수축을 자극해 혈소판 수, 혈액점도, 혈액응고를 증가시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은 2018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높은 질환으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은 크게 응고된 혈액 덩어리가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허혈성뇌졸중’과 뇌에 위치한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출혈성뇌졸중’으로 나뉜다. ‘허혈성뇌졸중’은 뇌혈류가 줄어든거나 중단되면서 뇌경색이 일어나는 경우로 전체 뇌졸중의 80% 가까이 차지하며, ‘출혈성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로 전체 뇌졸중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뇌졸중은 발생 즉시 심각한 증상을 느끼고 응급실을 찾기도 하지만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애매한 증상을 가진 환자도 있다. 손상된 뇌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그리고 심한 두통 등이다. 갑작스럽게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거나, 얼굴 모양이 확연히 달라졌거나, 어눌한 발음 등의 언어 장애, 망치로 때리는 듯 강한 두통 등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증상이 어느 정도 지속 후 사라지는 경우 ‘일과성 뇌허혈증’이라 부르는데 이는 뇌졸중 발생의 경고증상으로 생각해야 하므로 증상이 없어졌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조만간 뇌졸중이 진행하거나 재발할 수 있어 꼭 병원을 찾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뇌 조직은 뇌졸중으로 한번 괴사에 빠지면 어떤 치료에도 이전 상태로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평소 흡연을 하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심·뇌혈관의 위험질환이 있다면 뇌졸중의 발생 확률이 높으니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뇌졸중 예방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관리로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줄이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고혈압과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염분의 과다섭취를 주의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해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

2020년 안산시 진행형 동물복지



반려인 1천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평생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돈을 주고 애완견, 애완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생애를 함께 할 '반려동물'로서 유기견과 유기묘를 입양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이자 가족이 된 반려동물은 친화 문화가 자리 잡을수록 비 반려인과의 공존, 배려 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안산시가 마련한 동물복지 지원 내용을 살펴보자.

반려동물, 사지 말고 꼭 입양하세요!



안산시는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가족에게 동물 등록 비용과 입양비를 지원한다. 2020년 5월부터 유실 또는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 등록에 사용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등록비용 2만원을 지원하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보다 1천100마리 늘어난 반려동물 3천여 마리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안산시민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 동물병원에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지정 동물병원은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nongeop.an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이용도 제한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등록하자.

이와 함께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양비 지원도 연중 계속된다.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로 등록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부곡동) 또는 이리온 동물병원(신길동)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반려동물 1마리를 기준으로 자부담 50%를 포함, 입양비를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이때 입양한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이다.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계획 중인 안산시민은 분양 확인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진료 내역 등이 담긴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와 함께 시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이번 혜택을 꼭 기억하자.

문의: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52)

인터뷰



"도심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고양이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봐주세요."

오세운 원장 (이리온 동물병원 안산신길점)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인 이리온 동물병원은 상해가 심각해 치료가 시급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유기묘와 2개월 미만 고양이 등을 보호하고 입양하는 활동을 한다. 현재 이리온 동물병원은 고양이 70~80마리를 보호 중이다. 새끼고양이가 대부분이어서 세심한 보살핌은 필수다.

오세운 원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새끼고양이는 집으로 데려가 밤새 돌보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한다. 오 원장은 "한 달 평균, 새끼들만 10~20마리가 들어오기도 한다. 1~2개월의 새끼 고양이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돌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양이 연령이 낮다보니 분양 문의도 활발하다. 이리온 동물병원에 따르면 8월에만 30여 마리의 고양이가 입양됐다. 보호소로 들어온 고양이는 공고기간 12일을 지나면 일반 입양이 가능하다. 입양이 되면 파양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보호소에 들어오는 고양이는 한 마리당 4천원(1일)의 보조금을 10일 동안 지원받는다. 이후에는 고양이가 입양될 때까지 보호소에서 자력으로 보호하는 일뿐이다.

오 원장은 "자기감정을 충족시키는 존재로서 고양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려동물로서 입양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동물 방식은?

① 내장형 마이크로칩 기술

: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 의료기기로, 개의 양쪽 어깨 뼈 사이 피하에 주입한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내장형 마이크로칩 기술을 원하지 않으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소유물이 아닌 평생을 함께해야 할 가족
유기동물 입양 문의는 이곳으로!**



이리온 동물병원 안산신길점

- ☎ 위 치: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397 이마트트레이더스 안산신길점 2층
- 🕒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8시(점심시간: 오후 12시~2시)
- 📅 휴무일: 이마트트레이더스 안산신길점 휴무일
- ☎ 문 의: 이리온 동물병원(031-491-6125)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 ☎ 위 치: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부곡동)
- 🕒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월~금요일,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 ☎ 문 의: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031-296-0124)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곳
‘안산시 성곡 반려견 놀이터’

-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96
- 🎫 입장료 : 무료
- 📅 운영기간 : 매년 3월1일 ~ 12월31일(동절기 미 운영)
- 🕒 운영시간 : 화~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매주 월요일, 추석 연휴 휴장)
- ☎ 문의 : 반려견 놀이터(031-481-3647)

자유롭게! 뛰어놀게!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요즘.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자유로움을, 비 반려인에게는 여유로운 산책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 주는 곳이 있다.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안산시 성곡 반려견 놀이터를 소개한다. 2018년 7월 문을 연 이곳은 안산시 유일 반려견 놀이터로, 단원구 성곡동 제22호 근린공원 내 총 면적 3천118㎡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은 반려견 체고(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 40cm를 기준으로 대형견과 중·소형견 전용 운동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반려견 크기에 맞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다. 특히 전용 운동장에는 도그워크, A판벽, 허들, 터널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가 신나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 반려견 놀이터에는 다른 반려견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 잠시 동안 떨어져 안정시킬 수 있는 격리장과 놀이터 한쪽에 구별된 동물 배변 공간인 마킹장, 배변봉투 수거함, 음수시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반려견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 공존하고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성곡 반려견 놀이터에서 답답한 일상 속 해방감과 즐거움을 만끽하자.

**신나게 놀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반려견 놀이터 이용 수칙!**

소중한 반려견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반려견 놀이터 이용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먼저 13세 이상 반려인은 ▲외장칩 ▲내장칩 ▲인식표 등으로 동물등록을 마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입장해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도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놀이터를 입장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반려견 목줄과 배변 봉투를 지참했는지, 홍역·파보·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는지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중 예방접종 여부는 병원기록이 담긴 증명서나 수첩, 관련 앱 등록 정보, 반려동물이 다니는 병원에 전화 문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놀이터에 입장하면 반려인은 반려견의 배설물을 직접 처리해야 하며, 다른 반려견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관리해야 한다. 또 놀이터 안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김밥, 빵, 과자 등 스낵류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은 금지한다. 반려견 놀이터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관리자가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반려견과 싸운 이력, 중성화를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캐는 입마개를 착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명시된 맹견류, 질병이 있거나 미등록된 반려견은 이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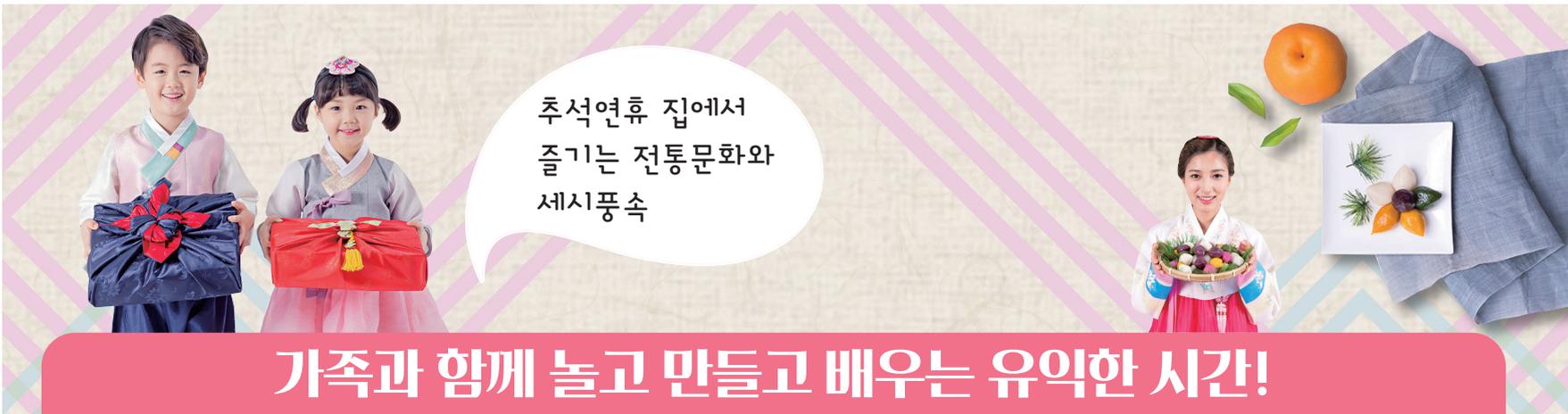


ansan_dog_playground

**2020 안산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 좋아요 951개

ansan_dog_playground
안산시 반려견 놀이터 SNS를 통해 실시간 유기동물 입양정보,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색해주세요!
#ansan_dog_playground #안산시반려견놀이터



추석연휴 집에서
즐기는 전통문화와
세시풍속

가족과 함께 놀고 만들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

음력 8월15일은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을 뜻하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秋夕)이다. 한가위, 가배, 가위, 가윗날, 월석이라고도 불리는 추석은 오곡이 익는 계절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로 채워지는 일년 중 가장 으뜸 명절이다.

삼국시대부터 명절로 지낸 오랜 전통이 있는 추석은 여러 가지 행사와 놀이가 세시풍속으로 전승된다. 예전

에는 명절이면 일가친척,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동놀이를 즐기고 음식을 나눠먹었다. 오늘날 명절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간단한 놀이나 먹을거리를 즐기는 문화로 바뀌었다.

더구나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흥겨운 명절 분위기가 덜 느껴지는 듯하다. 추석연휴 기간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되면서 친지 방문과 성묘 등을 자제하는 분위

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날만 같아라’라는 옛 속담처럼 풍요를 기리는 가장 큰 명절이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안전한 집안에 머물면서 직접 만든 추석 음식을 맛보고 가족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선선해진 가을 밤 한가위 보름달 아래 소원을 빌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김선영 명예기자_rimmom@korea.com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추석

한가위 송편 빚기

3세 유아부터 가능한 ‘요물딱 조물딱 떡 만들기’는 평소 요리를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 송편을 빚으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요리 체험이다. 건강한 식습관 체험도 가능한 송편 빚기는 아이와 쌀가루와 깨, 콩 등 소를 준비하고 떡을 찌는 조리과정을 통해 만족감을 높인다. 아이가 어리다면 촉각놀이에 자주 사용하는 점토, 식용 가능한 라이스클레이 같은 재료로 간단하게 송편을 만들 수도 있다.



전통 소품 만들기

이것저것 만들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민화 그림을 주제로 한 엽서와 부채, 나무 또는 종이팽이 등 소품을 색칠해 만들어보자. 안신은 버전이 있다면 장식과 끈을 달아 휴대폰가방으로 변신시키는 것도 좋다.



전래동화 각색해 이야기책 만들기

상상력이 풍부하고 책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와 ‘달나라에 떡방아 찢는 토끼가 산다면?’과 같은 질문으로 재밌는 상상놀이를 해보자. 추석, 보름달, 소원 등을 주제로 이야기나 캐릭터를 만들고 스토리 북이나 4컷 만화를 만들어보자.



온몸으로 즐기는 추석놀이

추석하면 떠오르는 단체 놀이인 강강술래, 줄다리기, 씨름 대신 장소와 성별,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로 ‘웃놀이’가 있다. 또 놀이터와 공원에서 뛰놀듯이 집에서도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활동적인 아이들에게 실내외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돼지씨름’과 ‘투호놀이’ 등도 흥미를 유발시킨다. 문구점에서 도구를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 수도 있는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등은 반복해서 연습하다보면 성취감과 집중력도 높일 수 있다. 아이들의 연령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통놀이 중 투호놀이와 돼지씨름 등 두가지 놀이방법을 소개한다.

궁궐 대신 집에서 우아하게 놀자! 투호놀이

투호놀이는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궁중과 양반집에서 명절이나 잔치 때 왕족과 일가친척들이 모여 즐기던 놀이다. 예법을 익히며 마음을 다스리는 놀이로, 왕실과 상류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여러 사람들이 동서로 편을 나눈 후 마당이나 대청마루에 귀가 달린 향아리를 놓고 일정한 위치에서 향아리 안에 화살을 던져 많이 넣은 편이 이기는 놀이다.



산책을 하면서 발견한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자연물 투호놀이를 하거나, 집에 있는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병, 종이상자 등을 이용해 재활용 투호놀이를 변형할 수도 있다.

내방안에 씨름장, 살바도 필요 없는 초 간단 씨름놀이! 돼지씨름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놀이방법도 간단해 오래전부터 행해진 돼지씨름은 팔씨름처럼 상대방을 잡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쪼그리고 앉아서 상대방을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다. 돼지처럼 동작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하는 씨름이라고 해서 ‘돼지씨름’이라고 한다. 동그란 원 안에 두 명이 쪼그리고 앉아 각각 두 팔을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넣는다. 엉덩이로 상대방을 밀어 쓰러뜨리거나 원 밖으로 밀어내면 이긴다. 앉아서 하는 돼지씨름이 힘들다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하는 손바닥 씨름으로 방법을 변경해도 좋다.

**추석 연휴기간 중
진료 안내센터 운영 안내**

휴식보다 중요한 안전!!

기간
2020. 9. 30.(수) ~ 10. 4.(일) (5일간)

진료 및 약국 안내

- 주간 : 상록수보건소(031-481-5937)
단원보건소(031-481-6381)
- 응급환자 상담(국번없이 119)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지역사회와 가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청소년의 건강한 치유를 돕는 ‘안산 청소년꿈키움센터’를 소개합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 위기청소년과 비행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기관이다.

전국에 16곳이 설치돼있는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 체험’, ‘가족캠프’,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교칙위반 과다 등으로 교육이 의뢰된 청소년과 기소유예 대상자, 법원에서 대안교육 명령 처분을 받은 자 등 위기 청소년은 이곳에서 전문 심리 상담과 유

형별 비행 예방 교육, 체험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과 청소년 회복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7년 7월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명칭으로 문을 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안산, 시흥, 안양, 군포, 의왕 등 수도권 서남부 소재 학교에서 의뢰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감성 활동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문제 유형별 전문 교육과 모의법정, 장애체험, 공감 체험형 역할극 등을 펼친다. 특히 초기단계에 있는 비행 청소년은 3일 이상의 교육을 받는데, 비행 유형별 예방교육과 체험형 인성교육 등을 통해 준법 의식과 책임감,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7월 31일, 2일 간에 걸쳐 가족캠프를 열어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소

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8월 12일부터 3일 간에 걸쳐 관내 초중고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2020년 여름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공감체험 역할극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한 교육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수료생의 사회적응률은 94%, 교육효과는 85%로 나타나 높은 교육 성과를 보였다”며 “위기 청소년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교육이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때에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565(월피동)
문의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031-482-6316~7)
권소희 명예기자_estateksh@naver.com

엄마와 아이의 빛나는 날개가 되어주세요!

“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사업장,
‘두빛나래협동조합’에서
품질 좋은 현미와 잡곡으로
스낵형 누룽지를 보내드립니다!
”

두빛나래협동조합(두빛나래)은 발달장애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만든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사업장이다. 두 개의 빛나는 날개라는 뜻의 순 우리말인 ‘두빛나래’는 엄마와 아이의 빛나는 두 날개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두빛나래는 일곱 가족이 뜻을 모아 2019년 11월에 처음 만들어졌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준비하고 자생력을 키워 지속가능한 사회적 협동경제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스낵형 누룽지’를 판매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업 교육으로 누룽지를 제조했던 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정했다.

두빛나래 누룽지는 공정을 세분화해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발달장애 직원들이 직접 만든다. 세부 공정 하나하나 조합원인 엄마들이 꼼꼼하게 관리한다. 발달장애가 있는 직원들도 하루 4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업무를 해낸다. 두빛나래 누룽지는 현미와 잡곡을 사용한 스낵형으로 출출할 때 먹으면 좋다. 밥에

스낵형 누룽지를 부셔서 함께 끓이면 구수한 송능을 먹을 수도 있다. 텀블러에 누룽지 조각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동하면서도 송능을 맛 볼 수 있다.

최정화 두빛나래협동조합 이사장은 “안산의 품질 좋은 쌀로 만든 누룽지는 맛이 훨씬 좋다. 아침 일찍부터 쌀을 불리고 밥을 짓고 뜨거운 상태에서 밥을 비비는 작업까지 거치면 누룽지의 맛이 더 구수해진다”면서 “조합원들이 지지치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일할 곳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표가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빛나래는 오는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문의 : 두빛나래협동조합 (031-407-6870)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소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동네 '마을 학습관' 시리즈 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이제는 작은 일상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던 대규모 세미나며 각종 모임은 동네에 있는 카페 겸 마을 학습관으로 자리를 옮겨 소규모로 열리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잔잔하고 소소한 일상과 이야기가 가득한 안산시 마을 학습관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즐길 거리 가득한 이동 마을상점생활관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근처 이동 주택가 공원 쪽에 '마을상점생활관'이라는 이름도 재미있는 카페가 있다. 아늑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곳에 들어서면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학교 앞 문방구가 떠오른다. 군것질거리도 많고 책도 많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재미있는 소품들과 소소한 사연들이 묻어나는 중고물품이 가득하다.

마을상점생활관은 이름에서 느껴지듯 카페 겸 서점, 꽃가게, 그리고 이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내 놓는 중고물품이 거래된다. 공간은 1층과 2층 복층구조로 나뉜다. 카페 공간인 1층은 공연·세미나 등 모임 공간으로 쓰인다. 2층은 저마다 누군가의 추억을 담고 있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중고물품을 전시하고 거래하는 곳이다. 카페 바로 앞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조용한 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세련된 인테리어의 마을상점생활관

과도 잘 어울린다. 카페는 '책사장'과 '꽃사장'이라고 불리는 부부가 공동 대표로 운영한다.

마을상점생활관은 친환경 운영으로 환경 보호에도 앞장선다. 일회용품인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티슈 대신 수건을 사용한다.

이곳에서는 중고물품으로 '중고 책'이 인기가 높다. 손님들이 다 읽고 가져온 중고 책을 정가의 50%로 판매한다. 특히 자신이 중고로 판매할 물건에 대해 직접 소개 글을 작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파는 사람도 즐겁고 사는 사람도 흥미진진한 중고 거래가 성사된다.

꽃사장 서정민 씨는 "마을상점생활관이 마을의 공유

공간으로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평소 소소한 재미가 있는 마을 학습관 겸 우리 집 거실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면서 "오랜 직장생활로 지쳐있던 때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은 공간"이라고 말했다.



- **위 치** : 상록구 이동공원로 35, 1층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9시(매주 목 휴무)
- **문 의** : 마을상점생활관(0507-1346-7733)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주민이 만드는 지역 여행, 안산에서 만나는 관광두레 시리즈 ③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4·16 희망 목공소'

목공을 매개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공간이 있다. 바로 4·16 희망 목공소다. 이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목공'을 통해 세상, 그리고 이웃과 소통한다.

2017년 8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4·16 희망 목공소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졌다. 당시 공방을 통해 교류하던 엄마들처럼 아빠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목공을 선택했다. 지금은 취미로 시작했던 목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숙련자가 될 정도로 기술도 쌓았다.

4·16 희망 목공소는 그동안 지인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곤 했다.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매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광두레를 시

'관광두레'는 마을주민이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지닌 음식과 체험, 기념품, 레저, 숙박 등 관광 사업체를 창업해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개발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소비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2019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5개의 주민사업체가 창업에 나섰다. 안산 고유 관광 아이템 개발에 나선 주민사업체 5곳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작할 당시에는 클라우드 펀딩(인터넷을 활용해 일반 개인들로부터 투자 자금 따위를 모으는 방식)을 시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관광두레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늘봄학교 청소년을 위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4·16 희망 목공소는 버려지거나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이 신조다. 실제로 지역 내 죽은 가로수와 고목 등을 수거해 다듬고 가공해 목공 제품으로 제작하고 있다. 목공을 통해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알리고, 제품 디자인과 가치, 철학을 담아 별이 된 아이

들의 꿈과 생명안전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이재복 4·16 희망 목공소 대표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로 위로가 된다. 목공소를 통해 진상규명이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바라보며 동력을 유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가 그냥 잊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새로운 가치로 부활할 수 있도록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 4·16희망목공소(031-402-4160)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우리 주변 노동자를 위한 응원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추석을 앞두고 회원들과 함께 ‘이웃 노동자 응원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다.

와동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일하는 이성미씨는 매일 사무실로

배달되는 물품을 전해주는 택배노동자들을 위해 사무실 계단 한쪽에 아이스박스를 두고 시원한 음료수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이씨는 “좋은이웃에서 택배노동자 등 이웃 노동자 응원하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위에 화물 운송과 택배 일을 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낯일 같지 않았다”며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로 명절 때보다 4배나 물량이 늘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지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대신 음식이며 물건을 집으로 배달시키는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긴 장마가 겹치면서 배달노동자의 수고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큰 힘이 됐다. 더위와 빗속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뭉쳤다.



그나마 올해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돼 좋았다”면서 “택배노동자가 충전할 수 있는 휴식이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좋은이웃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김미숙씨는 배달 폭주로 ‘배달기사 과로사’, ‘라이더 교통사고 증가’ 등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마스크와 음료수, 견과류에 ‘당신의 노동을 응원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소중한 노동을 우리를 힘나게 합니다!’ 등 글씨를 새긴 스티커를 붙여 택배노동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씨는 “마스크에 얼굴 대부분이 가려졌지만 환하게 웃으며 감사를 전하는 택배노동자들을 보면서 무척 뿌듯했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또 다른 회원은 “처음에는 음료수 정도만 준비해 현관 앞에 놓아두었다가, 안산에서 배달 일을 하는 택배노동자가 쓰러졌다는 기사를 보고 난 뒤에는 약과와 과일 등 간식거리도 준비하기 시작했다”면서 “어느 날 택배 상자에 매직으로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하트가 그려져 있더라. 뿌듯했다”고 말했다.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배달노동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알바, 경비, 청소노동자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노동자 응원하기 캠페인을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캠페인 스티커는 좋은이웃 사무국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 (031-411-2323)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신중년 일자리 시리즈

숲을 사랑한다면 나이 상관 없이 누구나! 도심 속 공원과 숲에서 녹색 꿈을 그리는 ‘공원 체험 강사’

화랑유원지, 고잔공원, 중앙공원 등 안산시내 자리하고 있는 공원은 모두 195개다. 시 전체 면적 중 6%가 공원인 안산은 녹색도시로 불린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도 9.1㎡에 달해 지난해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공원과 녹지면적은 안산시 최대 자랑거리다.

공원과 녹지, 숲을 바탕으로 한 공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공원 체험 강사’는 새로운 일자리로 주목받는다. 이들은 안산시에 있는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화랑유원지 등에서 5~7세 아동들과 초등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자연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특히 숲속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거나, 숲을 이용한 놀이 체험 등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원 체험 강사가 되려면 국가기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 과정을 이수했거나, 유아 숲 지도사, 숲 해설가 등 양성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어지는 자격증 소지자, 산림관련 업무 종사나, 관련 학과 전공자이면 가능하다.

안산시에서 공원 체험 강사로 일하는 이선옥씨는 “안산에 있는 공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서 “아이들이 공원에서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곤충, 식물을 관찰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매년 프로그램 기획을 바꿔 운영한다”고 말했다.



다. 그는 “숲에 대한 경험이나 관심이 높은 중년층 사이에서는 실제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공원 체험 강사에 도전하는 비율도 높다”고 덧붙였다.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공원 체험 강사가 되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공원 체험 프로그램은 중단된 상태다.

문의 : 안산시 공원과(031-481-2414)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9월18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열어 ‘제3회 추경안’ 등 38건 안건 의결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지난 9월18일 열린 제 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1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8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해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희)는 상임위 간사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동수)도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환)는 취약 계층 노인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태순)는 재난 시 시장이 한시적으로 대상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건축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한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태천)는 시 제출 예산



안에서 46억6천768만여원을 삭감한 2조3천288만3천705만여원 규모로 올해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박은경 의장은 폐회사에서 “건강한 일상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추석을 여유롭고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 필요성 지적

안산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해야”

안산시의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9월18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그럼에도 현재 국회

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석진 부의장은 “전국 2천927명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 의사결정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보내 의회의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곳,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미래의 빛’과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이 지난 9월18일 연구용역 보고회를 각각 개최해 용역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래의 빛’ 소속 윤태천, 추연호, 한명훈, 강광주 의원은 이날 ‘안산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미래의 빛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자료에 경기도 전체가 아닌 안산 노인의 욕구와 안산 지역 경로당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해 답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 욕구 조사에 있어 신체적 부자유나 일자



리 부족 등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지역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의 이기환, 윤석진, 김정택 의원도 ‘안산시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의원연구단체 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최종보고회 이후에도 내용을 추가·보완해 용역의 내실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재활용 전용봉투 도입 △거점 배출 및 선별 수거 △자원관리사 선발 등 방안은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만큼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사동 주민들이 배움과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

상록구 사동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을 돌봄 아이들을 위한 음악수업, 감골 주민회 마을 교사회의, 사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계속 미뤄왔던 중고장터인 공유 마켓을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놀이터에서 돛자리 깔고 안 쓰는 물건과 작아진 옷들을 들고 나와 흥정하는 재미가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보니 예전의 장터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 정화영 생생마을기자



수인선 전 구간 개통! 안산 사리역에서...

수인선 3단계 구간(수원~한대앞역) 공사가 마무리되며 지난 9월12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산에서 수원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리역 반지하화 공사로 터널 상부에는 어울림공원을 꾸며 곳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휴게데크, 플라워전망대,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장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과 풍경이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김형문 생생마을기자



2020 전국육상선수권대회 우승 오수경 선수와의 만남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00m 시합에서 1위를 차지한 오수경 선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운동선수 경력 21년, 안산시청 육상부 소속 4년차 오수경 선수는 가장 사랑하는 육상에 멈추지 않고 도전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고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자 100m 한국 신기록 달성을 목표로 질주하는 그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 전지환 SNS시민기자



2020 단오장사 씨름대회 우승 이아란 선수와의 만남

2020 영덕 단오장사 씨름대회에서 매화급 장사에 등극한 이아란 선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안산시청 씨름부에 입단해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이아란 선수의 우승 비결과 연습 노하우, 훈련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대회인 전남 구례 전국여자전차하장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아란 선수를 응원합니다!

• 전지환 SNS시민기자



똑똑한 책 대여 안산 스마트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은 현재 중앙역, 상록수역, 한대앞역, 초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대출과 반납! 딱 필요한 기능만 있는 스마트도서관!! 조금만 관심 가져도 누구나 대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했어요. 베스트셀러와 읽고 싶은 신간 책들을 장바구니에 다 담았지만 아쉽게도 2권씩만 대출이 가능했어요. 원하는 책을 고른 후 안산시 도서관 회원증으로 간단한 터치 몇 번에 책을 빌릴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 이예은 학생기자



안산 문화체험 자전거로 만나는 안산

지난 9월13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만나는 안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와~스타디움부터 중앙도서관, 안산천, 호수공원을 다녀오는 안산의 중심지 코스인데요. 자전거를 타며 투어 스탬프를 전부 찍으면 마지막에 귀여운 기념품도 챙겨준답니다. 낯선 타지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교류 프로그램들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 이예은 학생기자





심훈 선생 소설 '상록수' 무대,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동

**제1회 주민총회 개최
'일동의 자치 꽃을 피우다'**



상록구 일동주민자치회는 9월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비대면 방식과 현장 거점투표소 4개소를 운영해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주민총회는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들과 위원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시행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발굴한 마을의제에 대한 동의 여부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주민총회 마을의제는 ▲마을경제살리기 <우리동네 놀러오세요> ▲다문화와 조화롭게 살기 ▲우리동네 1박2일 가족캠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일동공원 이용약속 만들기 ▲정감톡톡마을축제 <일동에서 놀자> ▲청소년이 만드는 마을영상 <행복한 우리동네> 등 6개 사업이다.

'2020년 제1회 일동 주민총회'는 초등학교 이상 일동 거주 주민과 생활주민(일동 소재 사업장과 직능단체 소속 등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가동 홈페이지 및 일동 마을게시판 밴드, 각 주민모임 SNS를 이용해 마을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오병철 일동주민자치회장은 "이번 2020년 주민총회는 축제"라며 "꼼꼼히 마을사업을 잘 살펴보고 참여해 일동의 자치가 꽃을 피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순미 일동장은 "일동주민자치회는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제1회 주민 총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든 여러 제안 사업들이 2021년에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층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일동행정복지센터(031-481-5400)



이동

익명의 기부천사가 건넨 온기



상록구 이동행정복지센터에 한 중년의 여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써 달라"며 1천만 원을 선뜻 기부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9월8일 오후 2시25분께 이동행정복지센터에 모자를 눌러쓴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와 10만원권 수표 100장이 든 봉투를 직원에게 전달했다.

봉투 안에 담긴 수표 문치를 보고 깜짝 놀란 직원에게 이 여성은 "과거에 동장님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도움으로 자녀 학비를 비롯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힘든 이웃에게 써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부를 익명으로 해 달라"며 자신의 선행을 주변에 알리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여성이 두고 간 1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으로 접수했으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활용 방안을 논의한 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안산시에는 중년 여성처럼 익명의 기부를 비롯한 개인 후원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문의 : 이동행정복지센터(031-481-5657)

사동

사동주민자치위원회, 비대면 화상회의로 활동 전개

상록구 사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위해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를 개최했다.

화상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정숙 사동장과 이영임 주민자치위원장은 사전에 화상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임원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사전 준비로 처음 진행하는 화상회의 임에도 회의 당일 모든 위원이 참석해 발언하는 등 대면회의와 다를 바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또한, 화상회의는 위원들의 회의장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어느 때보다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에서는 202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보고를 위한 분과별 사업에 대한 위원들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임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도 멈춰버린 요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비대면 화상회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숙 사동장은 "코로나19가 행정업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변화에 위축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다가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사동행정복지센터(031-481-5502)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 소식이 궁금하다.

선부2동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위해 응원활동 펼쳐



단원구 선부2동 석수골마을정원협의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만든 가랜드(장식 소품)를 마을 곳곳에 설치하고 홀몸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친환경 손소독제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선부2동 자생단체인 석수골마을정원협의회 회원 10여명은 지난 9월10일,

직접 만든 친환경 손소독제, 손수건, 간식 등으로 선물꾸러미를 만들어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비대면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또한 '우리 모두 으쌰으쌰', '힘내요', '괜찮아', '우리 서로 힘이 돼줘요', '극복 에너지 뽀뽀' 등 회원들이 구상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가랜드를 마을 곳곳에 붙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장도선 석수골마을정원협의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마을정원 만들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작게나마 응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영분 선부2동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 서로가 응원하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깨끗하고 정감 있는 선부2동을 만들어 가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선부2동행정복지센터(031-481-6915)

원곡동

다문화가정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 추진



단원구 원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책 읽어주기 사업을 시작했다.

원곡동 협의체위원들은 2인 1조로 나눠 관내 위치한 안산이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매주 1회 책을 읽어주고 간식도 나눠 주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김교석 민간위원장은 "원곡동에 거주하는 많은 다문화가정이 한국어에 서툴러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가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사업을 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원곡동행정복지센터(031-481-6685)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스크 구입에 부담이 있는 관내 저소득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호수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2천매를 기탁하셨습니다!

선부3동

따뜻한 아파트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요

입주민에게 아파트는 고단하고 지친 하루를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하고 아늑한 안식처와 같은 곳이지만, 그곳을 일터로 살아가는 경비노동자들에게는 아파트가 곧 삶의 현장이고 그 곳이 곧 사업장이다.

같은 아파트에서 수년째 일하고 있지만 실상은 1개월, 3개월짜리 단기간 근로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해오고 있거나 제대로 된 휴게공간도 없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여전히 대다수다.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를 우리 아파트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작은 실천과 배려가 더욱 필요해지는 이때, 선부동 수정한양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아름다운 행보가 눈길을 끈다.



수정한양아파트는 1천870세대의 대단지로 이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만 해도 30여명 가까이 된다. 그동안 경비노동자 쉼터가 지

하에 있어 화재위험과 습기, 모기 때문에 야간에 잠을 자야하는 경비노동자의 휴게실로는 적절하지 못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고심 끝에 결단을 하고 그

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하던 관리사무소 2층 공간에 경비노동자 휴게실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수정한양아파트가 이런 변화를 갖게 된 배경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안산시 상생아파트 협약 체결도 함께 작용했다.

김정화 입주자대표회장은 "고령의 경비원, 미화원 분들이 열악한 지하 쉼터에서 지내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일단 햇빛이 잘 드는 지상으로 쉼터를 만들 수 있어 이제야 마음이 홀가분하다"며 "이 쉼터는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앞으로도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입주자대표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집에 사는 쥬쥬공주님

아기 이름 : 최희원(여) 출생년월 : 2017년 11월

퇴근 후 집에 가서 첫 번째 하는 임무는 “우리 공주님이 어디있을까~?” 하고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다. 현관문 여는 소리에 이불속으로, 커튼 뒤로 숨어있는 딸을 못 본 체하고 여기저기 헤메다가 찾아야 한다. 바로 찾으면 서럽게 울면서 다시하자고 한다. “여기 있네!!”하고 찾으면 우리 딸은 바로 주문을 외운다. “시크릿~ 쥬쥬!!” 하고 요술봉을 휘두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문에 걸린 듯 아파하며 쓰러져야 한다. 우리 집에 사는 쥬쥬공주는 행복한 듯 웃으며 그제서야 아빠에게 잘 다녀왔냐는 인사를 하듯 와서 안긴다.

가끔 너무 피곤해서 같이 못 놀아줄 때도 있지만 무심하게 방으로 들어간 뒤 실망한 표정으로 뒤따라오는 딸을 보면 세상 가장 큰 죄를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퇴근 후 숨바꼭질과 시크릿쥬쥬 놀이는 꼭 하는 편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매년 다른 캐릭터로, 다른 놀이로 바뀔 것 같지만 이런 딸이 사춘기가 오고 조금 컸다고 부모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시기가 오면 많이 서운할 것 같다.

· 최진호(상록구 해양동)



독자투고

4월 코로나가 준 선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납편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체불이 3개월 넘게 이어졌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토닥이며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도 학교에 못 가고 원격으로 수업하게 되니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의 손과 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어느새 어른처럼 자란 아이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다가오기도 했다. 자잘한 부딪힘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집으로 휴가를 온 것 같기도 했다.

힘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각자 일상의 삶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등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소소한 일상의 평범함들이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지금의 시간이 그래도 감사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지금 이 시기를 모두가 잘 견뎌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이옥자(단원구 고잔동)

책 읽는 안산 / 10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세계문학으로 세계여행』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아동



돈키호테

저자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 출판사 아이세움

‘돈키호테’는 라만차 지방에 사는 한 시골 귀족으로, 기사도 소설에 너무나 깊이 빠져든 나머지 자신을 방랑기사로 착각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기사도 소설에 빗대어 생각한다. 꿈 많은 돈키호테와 현실 주의자인 산초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는 신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청소년



허클베리 핀의 모험

저자 마크 트웨인 / 출판사 민음사

미국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는 작가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으로써, 작가의 소년시절 추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장난꾸러기 ‘허클베리 핀’이 도망 중이던 흑인노예 ‘짐’을 만나 함께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강을 내려가면서 겪는 모험을 그리며, 주정뱅이 아버지 지나 흑인노예 짐의 탈출 등을 통해 인종문제, 인습의 파괴 등을 묘사하고 있다.

성인



아웃 오브 아프리카

저자 카렌 블릭센 / 출판사 열린책들

작가가 17년간 아프리카 케냐에서 커피 농장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모험과 우정, 깨달음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이혼 후 농장을 차린 해부터 농장을 처분하고 덴마크로 돌아가기까지 아프리카 생활에서 얻은 추억과 단상들을 풀어놓는다. 아프리카에 대한 작가의 사랑은 아프리카의 자연과 동물, 그리고 아프리카 부족과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눈길로 이어진다.

수인선 협궤열차의 추억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안산에서 인천으로 통학하던 당시, 수인선은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1975년 어느 여름날, 어린 그 시절엔 왜 그리 고단하고 아침 잠 많던지... 어머니의 수차례 재촉과 실랑이 끝에 간신히 일어나 보니 늦어도 너무 늦었다. 원곡역에서 하루 네 번만 운행하는 첫 차 시간은 6시 30분! 이 열차를 못타면 학교에 결석할 수밖에 없어 세수는 커녕 아침밥도 못 먹고 젓 먹던 힘 다해 뛰는데 야속하게 도착을 알리는 기적소리에 다급한 마음과 달리 다리는 후들거려 천근만근 무거웠다. 굉음 울리며 내 앞으로 거침없이 달려오는 열차, 이젠 다 틀렸다 포기하는데 열차가 갑자기 요란한 금속 브레이크 마찰음 내며 속도를 줄이고 기관사 아저씨가 얼른 타라며 다급히 외치신다. 이어 차장 아저씨는 절망에 빠진 내게 손을 내밀어 힘껏 당겨 올려줘 간신히 열차에 올라타 다른 승객들 보든 말든 탈진했다. 미안하고 고맙고 부끄러운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변

변히 감사하던 인사 한마디 못 드려 지금까지도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싣고 내겐 정 넘치게 특별했던 수인선 협궤열차가 1995년 12월31일 너무나 아쉽게 멈춰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가 폐선된 지 26년만에 재개통다니, 반가웠다. 사리, 야목, 어천, 고색 옛날 사용했던 익숙한 역 이름과 함께 낭만과 추억을 가득 싣고 달리던 좁은 선로의 협궤 꼬마열차가 최신형 전동차로 변신해 거침없는 미래를 향해 달릴 것을 생각하니 설레는 맘으로 개통 첫날 온가족이 중앙역에서 수인선에 승차했다. 사리역을 지나 펼쳐진 황금색 들판과 함께 가슴 뭉클한 어린 날의 수인선 기억이 빠르게 지나간다. 수인선 재개통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45년 전 여름날 곤경에 빠진 내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뜻 배려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성도 이름도 모르는 기관사아저씨, 차장아저씨께 뒤늦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 김완속(단원구 고잔동)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산재발생율을 줄이는 효과 기대



지난 4월부터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약300여 차례에 걸쳐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사고예방활동을 하며 특히 건설기계 작업형태를 세심히 관찰했다.

대부분의 현장 작업자들은 사용하는 건설장비 동선과 회전반경 내에서 근접한 채 일하고 있었으며 매 순간 위험한 장면들이 연출됐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고의 1/3 가량이 건설기계로 기인한다고 한다. 올해부터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으로 19종의 건설기계 면허보유자는 법정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됐다. 100만여 건설기계조종사들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1966년에 최초로 중기관리법(현재의 건설기계관리법)이 제정된 후 무려 54년이 걸린 것이다. 또한 고소 작업차에 이어 앞으로는 전동 지게차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현저하게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으리라 크게 기대가 된다.

어느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란, 지식과 기술의 역량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에 대한 안전한 자세까지 고루 갖춘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련한 조작 기술을 가진 전문가라 하더라도 동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동심, 그리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신이 부족하다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고를 예방하려면 장비조종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더욱 함양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시공담당자는 위험한 방법의 작업지시를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건설현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건설기계가 없었다면 현대의 도로, 교량, 건물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100만 기술인들께 '지구를 조각하는 예술가'라는 찬사를 바치며, 부디 자신은 물론 같이 작업하는 동료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 윤희복(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 안산팀장)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 A4용지 2/3 이상 ·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36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 A4용지 절반
· 관련 사진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KBS (9월 10일)
수인선 25년 만에 재개통-통행시간 단축

KBS (9월 17일)
생생정보통 '미스터LEE 사진 한 컷'

코미디 TV (9월 18일)
맛있는녀석들 먹어서 세계속으로

OBS (9월 27일)
대부도편 '그리우니 섬이다'

추석연휴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안내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관내 공설공원묘지 및 사설법인묘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온라인(비대면) 성묘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 e하늘성묘시스템 : www.ehaneul.go.kr

◇ 문의 :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2868)

2020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

- ◇ 공모기간 : 2020. 9. 7. ~ 10. 6.
- ◇ 응모대상 : 안산시민, 관내 기업·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 ◇ 공모내용 :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의 개선책
- ◇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rbwp2059@korea.kr)
 - 우편 접수(단원구 화랑로387 안산시청 혁신법무과)
- ◇ 시상내역 : 시장표창 및 시상금 수여
- ◇ 문의 : 안산시 혁신법무과(031-481-2059)

2020년 추석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중지 안내

추석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업체 휴무 등으로 10월1일부터 2일까지 생활쓰레기(음식물 포함) 수거가 중지됩니다. 중단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배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9.30.(수)	10.1.(목)	10.2.(금)	10.3.(토)
수거 여부	정상수거	수거중단	수거중단	정상수거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0)

안산시 개방화장실 공모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0. 9. 1. ~ 11. 30.
- ◇ 개방기간 : 2021. 1. 1. ~ 2022. 12. 31.
- ◇ 신청자격 : 선정대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지원내용 : 롤 화장지(3박스/월), 종이타월(1박스/월) 수도요금 월 1만원, 시설보수 등
-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단원구 중앙대로 839, 환경정책과)
- ◇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244)

제19회 안산전국여성백일장

- ◇ 접수기간 : 2020. 8. 1. ~ 10. 31.
- ◇ 응모자격 : 전국 성인 여성(미등단) 누구나
- ◇ 응모내용 : 시 3편, 수필 2편(자유주제)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jw30561218@hanmail.net)
- ◇ 문의 : 안산여성문화회(010-9153-3506)

디지털 환경교육 창작 콘텐츠 공모전

- ◇ 공모기간 : 2020. 10. 12. ~ 10. 30.
- ◇ 응모자격 : 환경에 관심있는 시민(18세 이상)
- ◇ 공모내용 : 광고, 영상, 동화, 웹툰 등 자유로운 형식
 - 교과 연계형 환경교육 콘텐츠
 -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eople@eg21.kr)
 - ※ 제출서류 안내 및 시상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www.paskansan.com)
- ◇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14)

2020 추계 광견병 예방주사 무료 접종

- ◇ 접종기간 : 2020. 10. 5. ~ 10. 19.
- ◇ 실시지역 : 안산시 전 지역
- ◇ 대상 : 반려동물(3개월령 이상 개, 고양이)
- ◇ 참고사항 :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한 경우 제외
- ◇ 문의 :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23)

10월의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색〉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Q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과 위생 관련 5대 실천 과제를 준수한 식당을 00식당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00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① 안전 ② 모범 ③ 안심

Q 반려견을 위한 전용 놀이기구와 운동장, 편의시설이 준비된 휴식공간. 안산 유일의 반려견 놀이터는 어디에 위치해있을까요?

① 본오동 ② 호수동 ③ 성곡동

퀴즈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업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주세요. 응모자 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 (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

응모기간 : 10월 27일까지 9월 호 정답 : ①, ③

빅데이터-AI-클라우드 중심,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안산

첨단 인프라 구축의 핵심!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시에 2023년 건립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

- ☑ 생산유발효과 8천36억 원
- ☑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715억 원
- ☑ 직간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 2천700명

신안산선 한양대역 (2024 예정)

주거지 (아파트)

주거문화 시설(예정)

해양 야구장

Hub동 (예정) 주차장 (예정)

대운동장

한양대 ERICA 캠퍼스

서문

사동89블록 스마트도시 (신산업군·연구기관 등)

경기 테크노파크

정문

주거지 (단독주택용지)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ANSAN CITY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